

# 코로나19 여파에 지역 기업들 '휘청'...위기 극복 총력

### 금호고속 경영진 20% 임금삭감·단기 무급휴직 대상 확대 금호타이어 中 원자재 수급 차질에 추가 하락...자사주 매입 유통업계 매출 반등·기아차 일부공장 가동 등 회복 기대도

코로나19 여파에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이 '휘청' 거리고 있다. 버스 이용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금호고속은 '임원 임금 삭감' 카드까지 꺼냈다. 중국발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자동차 산업 위기에 추가 하락세를 겪던 금호타이어는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기아차 광주공장 역시 일부 공장의 '셧다운'이 연장되면서 지역 협력업체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차츰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유통업계 매출이 반등하고 있

고, 중국에서의 부품 수급이 재개되는 등 자동차업체의 위기감이 가시고 있다는 점에서 이달 고비를 버티면 지역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7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금호고속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상경영 차원에서 임원 임금을 20%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사무직 직원만 대상으로 실시하던 단기 무급휴직도 승무사원과 기술사원까지 확대했다. 금호고속은 현재 KTX와 SRT 등 고속

철도로 이용객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겹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사태 직후 버스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20% 감소하더니, 최근에는 무려 40%상당 급감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이용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진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20% 임금을 삭감해 경영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더블스타의 투자유치 이후 경영정상화 과정을 밟으면서 상승세를 타던 금호타이어도 코로나 여파의 유탄을 맞았다. 최근 코로나19로 중국에서의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자동차업체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단기주가 급락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가 전대진 사장이 자

사주 1만주를 매입하고, 김상엽 영업마케팅본부장이 7000주를 매입하는 등 주요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동참하면서 추가 방어에 나서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3공장의 봉고·트럭 라인의 휴업을 당초 14일에서 19일까지 연장했다가 이날 21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카니발과 스텔러, K9, 스토닉 등을 생산하는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은 휴업을 19일까지 재연장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선 봉지 '와이어링 하니스' 재고 부족으로 휴업 기간을 10~11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가 또다시 연장을 거듭한 것이다. 앞서 광주 1·3공장(대형버스 라인)과 2공장은 14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최근 잦은 휴업으로 광주에서만 4000대가 남

는 물량의 생산차질로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기아차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업체가 잇달 휴업에 들어가면서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도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 기업들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달 최대 고비를 넘기면 차츰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안도감도 나오고 있다. 우선 와이어링 하니스를 비롯한 급한 부품이 다시 들어오면서 우려했던 '휴업장기화' 고비는 넘긴 상태다. 아직 부품 공급이 원활치 않아 생산속도 조절 등에 따른 협력업체의 고충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으나, 완성차업체의 생산이 정상 가동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이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직격탄을 맞았던 유통업계는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비롯한 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 등은 10~60% 상당 매출이 급감하는 등 위기를 맞았다. 이후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 지난 주말 매출이 50~60% 상당 오르는 등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광주의 한 경제계 인사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위기를 넘긴 뒤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자칫 사태가 더 심각해지거나 여파가 장기화돼 지역경제 피해가 겹잡을 수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임낙송(왼쪽 두번째) 한전 광주전남본부장이 17일 남광주시장에서 '1부서 1시장 자매결연' 사업의 하나로 전통시장 장보기를 하고 있다. <한전 제공>

## 1부서-1시장 자매결연 상권 '기 살리기' 나서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지난해 말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중요한 한국전력이 보편대책으로 광주·전남 전통시장 120곳에서 연 10억8000만 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17일 광주지역 14개 전통시장과 '1부서 1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상인회는 남광주시장·남광주해뜨는시장·대인시장·양동시장 등 12개이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본부 내 부서와 지역 전통시장 120곳에 대해 '일대일' 자매결연을 맺게 한 뒤 '매일 전통시장 가는 날' 등 협력행사를 통해 연 2만명의 직원이 1만원씩 총 2억2000만원 사용할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 음식점에서는 부서별 식사를 하며 8억6000만 원을 쓴다. /백기용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중국 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왼쪽)은 지난 14일 남구 월산동 중화인민공화국광주총영사관에서 쑤시엔위 총영사에 중국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물품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 LH, 장성삼계지구 국민·영구임대주택 120호 공급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장성삼계지구 구 1블록 국민임대주택 90호와 영구임대주택 30호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국민·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428-12번지 일대 장성삼계지구 1블록에 건설되고 있다. 입주는 오는 2021년 1월 예정으로 공급평형은 국민임대주택이 전용면적 기준 29·46㎡, 영구임대주택은 26㎡다. 국민임대주택 인터넷 청약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월3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진행되고, 대행접수는 26일부터 28일까지 LH 삼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 청약신청은 24일부터 3월3일까지 장성군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위니아대우, 대유그룹 인수 2년만에 흑자전환

### 위니아담채와 시너지 효과 당기순이익 98억원 기록

위니아대우가 대유위니아그룹 품에 안긴 지 2년만에 흑자전환했다. 위니아대우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총액 1조2740억원, 당기순이익 95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 2월 위니아대우의 전신인 동부대우전자가 대유위니아그룹에 인수된 이

후 첫 당기순이익의 흑자전환이다. 인수 당시 당기순이익 890억원 적자에서 1년 새 985억원을 더해 올해 95억원의 흑자를 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면서 흑자로 전환했다는 게 위니아대우의 설명이다. 대유위니아그룹에 인수된 이후 지난 2년간 위니아대우는 위니아담채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사업 효율화를 전개해왔다. 2018년 양사가 각각 보유한 부평과 성남에 있던 연구개발(R&D) 조직을 하나

로 통합하고, 위니아대우의 성남물류센터와 부평연구소 등 중복 자산을 매각해 금융 비용을 절감시켰다. 해외 영업 중심인 위니아대우는 해외법인의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도 극대화했다. 유럽을 비롯한 말레이시아 등 법인 간 합병을 통해 고정비를 낮추는 구조를 만들었다. 특히 해외 실적은 북미와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 개선됐다. 위니아대우는 한류 마케팅을 펼쳐 중남미에서 한류문화 열풍이 소비로 확대되는 현상을 만들었고,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고객층 다각화에 성공해 소형가전의 비중을 키웠다.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효율화도 전개했다. 중국 천진과 멕시코 공장 등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원가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천진과 멕시코 공장은 위니아대우의 주력 상품인 냉장고와 세탁기, 주방기기 등의 생산지이다. 위니아대우 관계자는 "새로운 대우로 시작한 지 2년만에 소비시장이 안정할 만한 성적표를 받게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올해는 반격의 고비를 당겨 기대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42.17 (-1.42)	↓ 금리 (국고채 3년)	1.32 (-0.01)
↑ 코스닥	692.59 (+3.68)	↑ 환율 (USD)	1183.90 (+0.90)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